

詩人・尹東柱(1917～1945)に対して
同志社大学名誉文化博士の学位を贈呈

韓国の国民的詩人として知られている尹東柱は、1917年、旧満州北間島（ブクアンド）で生まれ、1938年、延禧（ヨニ）専門学校（現在の延世大学）文科に入学し、1941年に卒業しました。1942年4月、立教大学文学部英文科に入学、同年10月、同志社大学文学部文化学科英語文学専攻に転入学し、在学中、ハングルでの詩作活動を続けました。1943年7月、抗日独立運動の思想犯として京都市鴨警察署に逮捕され、1945年2月16日、福岡刑務所で獄死しました。

1947年に尹東柱の詩が初めて公にされてから、彼の代表的な詩集『空と風と星と詩』は広く読まれるようになり、中学・高校の教科書にも掲載され、韓国において彼の詩と彼の人生は多くの人に影響を与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同志社大学では、こうした歴史の経緯を踏まえ、尹東柱の没後50周年の1995年、尹東柱の詩碑建立に協力しました。

今も、韓国から多くの高校生や観光客が絶えることなく本学の尹東柱詩碑を訪ねています。2025年2月16日、尹東柱の没後80周年を迎えました。同志社は2025年に150周年を迎えるにあたり、その中に戦争の時代があり、多くの学生がその時代の犠牲者となったことを忘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2025年、日本社会が戦後80年を振り返る中で、また、尹東柱詩碑建立30周年を記念する中で、本学はその歴史の中に尹東柱がいたことを記憶し、歴史の教訓を心に刻みながら、新しい時代を展望すべきであると考え、2024年12月、同志社大学は尹東柱に対し名誉文化博士の学位を贈呈することを決定し、2025年2月16日に名誉学位贈呈式を行いました。



2025年2月16日名誉学位贈呈式の尹仁石さん（遺族代表）
2025년 2월 16일 명예 학위 증정식의 윤인석 씨 (유족 대표)



1943年初夏、同志社大学の同期生たちと学治川に遊ぶ。前列左から2人目が尹東柱
1943년 초여름, 도시사대학교의 동기생들과 함께 우지강에서 놀다.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윤동주이다.



尹東柱の署名
윤동주의 서명

発行/学校法人同志社 編集/同志社大学広報部広報課
〒602-8580 京都市上京区今出川通烏丸東入 ji-koho@mail.doshisha.ac.jp
2025年4月



Yun Dong-ju

윤동주

尹東柱詩碑



1941年12月延禧専門学校卒業時
(延世大学尹東柱記念館提供)

直筆原稿



(尹 仁石氏所蔵)

詩碑裏面

尹東柱（ユン・ドンジュ）はKOREAの詩人で、1917年12月30日、中国吉林省龍井郊外の明東村に父尹永錫、母金龍の長男として生まれました。ソウルの延禧専門学校に学んだのち、1942年渡日、同志社大学文学部に在学中、'43年7月14日思想犯として京都市鴨警察署に検挙され、'45年2月16日、福岡刑務所で獄死した。
鮮烈な民族愛とキリスト教信仰と心やさしき童心とが溶けあった尹東柱の詩は同胞ばかりでなく、民族を越えて人々の心を打つ。
尹東柱をしのび、ゆかりの地にこの碑を立てるものである。

同志社校友会コリアクラブ
尹東柱詩碑建立委員会
尹東柱を偲ぶ会
1995年2月16日建之

文は大村益夫 早稲田大学教授による

尹東柱詩碑建立の趣意書

終戦（解放・光復）前の韓国（朝鮮）に尹東柱という民族詩人がいたことをご承知の人は多いかと思います。現在、南北双方から高く評価されている数少ない詩人です。

旧満州の間島（現在の中国東北地方）に生まれ延禧専門学校（現在の延世大学）を卒業、渡日、立教大学に半年留学後、同志社大学英文科に転入しました。

そして、同志社大学在学中に、「治安維持法違反容疑」で京都下鴨署に逮捕、起訴されました。朝鮮語で詩を書いたことが、朝鮮語の使用は独立運動につながる、として禁止した当局の逆鱗に触れたのですた。植民地時代、それも戦時下の裁判のこと故、当然有罪となり、福岡刑務所に送られ、解放目前の1945年2月16日福岡刑務所で獄死しました。享年27歳でした。

ご承知のように福岡刑務所の生体実験との関連が云々されていた所です。だから「殺された」との説も「有力視」されています。（当時の状況は一切秘密裏に処理され、未だに真相はわかっていません。今尚、京都時代の作品や遺物は何ひとつ見つかっていません。）

解放後の韓国および北朝鮮では大変評価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特に韓国では、どんな教科書でも必ず出てくる、と言われる程親しまれている国民的詩人です。そればかりか、最近では日本の教科書にも掲載されております。筑摩書房発行『新編現代文』（高校3年で履修）（茨木のり子著『ハンゲルへの旅』朝日新聞社刊より転載）が、それです。「獄死と、日本の教科書に掲載」という両極端の評価に、50年の歳月を感じざるを得ません。

その詩は、韓国では勿論、日本でもよく読まれ、幾多の評論、論文が出されています。特に青年層には圧倒的な人気があり、その純粋な詩情を慕う青年は、日韓を問いません。

そして、生まれ故郷の間島には墓が、出身学校の延世大学では詩碑が建てられております。しかし直接弾圧を受け、獄死した日本では何の「痕跡」もございません。特に沢山の詩を書いたであろう、京都の地には……。

そんな折、同志社大学のコリア出身OB達から次の様な声が上がって参りました。「尹東柱と同じキャンパスで学んだ我々同志社のOB、同胞学生として、これで良いのだろうか?何かできることはないものか」

その様な素朴な疑問に駆られたのは彼らだけではありませんでした。戦後50年近くになって……いざさか遅きに失した感はないにしてもあらず、ですが、「何とかしたい、何とかしよう」という声が澎湃と上がってきました。

当初は、同志社校友会コリアクラブのOB会及び同胞学生、留学生が中心になって、呼び掛け、1992年2月16日の「命日」に、第1回の集いを行いました。

当日は、韓国からの留学生、在日韓国、朝鮮人は勿論、尹東柱の生まれ故郷

同志社校友会コリアクラブ 尹東柱を偲ぶ会 詩碑建立委員会

の中国間島地方出身の朝鮮族留学生、さらには数多くの日本人も出席、総勢百人を超えました。その後の反響も圧倒的に日本人からの声が多かった事は、同志社校友会コリアクラブのOB達をして、日本人の人々との共同事業にすべきだ、との決意を固めざるを得ませんでした。日本人の中には「我々がすべき事を……」と恐縮する人が何人もおられた次第です。

『1995年は、一つのエポックメイキングな年であります。』

終戦、解放、敗戦、光復、生還、抑留、望郷、飢餓、挫折、等々……。人によって、様々な言葉、様々な思いが交錯する年でもあるでしょう。

戦後50年を経ても尚、深い傷跡が残っている事も又事実です。侵略した側である、日本人ですら、その傷跡を完全に拭い去っている訳ではありません。（原爆、中国残留孤児、アジア各地に残り、とり残され、定住した軍人、軍属etc） 況んや侵略を受けた側をや……

戦後50年。ともかくにも我々は生きてきました。数多くの人々の犠牲の上に。人それぞれ様々な思いがあるでしょう、それぞれの迎え方があると思います。ただ二度と、戦争や侵略という身震いするような事象が我身に降りかかるのを拒絶したいというのは、共通の認識だと思います。

戦争や侵略というおぞましい言葉が、聖戦や協和という美名に置き換えられ、数限りない無辜の民、光輝く未来に満ち溢れた青年達の貴重な命を奪い去っていきました。

「空を仰ぎて、一点の恥ずべき事のなきことを」^{#1}と吟じた詩人もその一人でした。詩人が学んだ同志社の校祖新島襄は「良心の全身に充滿したる丈夫の起り来らんことを」と言いましたが、詩人の生きざまは正にそうでした。

「星を歌う心で、全ての死にゆくものを愛せねば」^{#2}と良心の命じるままに生きました。その清冽な生き様を我々が真似得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が、「丈夫たらん事を」願わざるを得ません。

即ち、過ちを恥じるのでなく、「同じ過ちを繰り返す愚を、犯さない、犯させない」為にも、詩人の言葉を肝に命じたいものです。そのような気持の一つの具現として、又、恥多き人生を生き続けた我々が、形として残せる物の一つとして、「詩碑」を建立しようと思うに至ったのです。

それは、同時に、国や民族、宗教、思想信条を超越した逝きし者達への鎮魂歌でもあります。そのような意味からも、この会は韓国・朝鮮人、日本人は勿論、広くアジア各国の人々にも参加して頂きたいものです。この詩碑が、過去の歴史は忘れないまでも、過ちは許し、未来に託す一つの道標となってくれば、と願わざるを得ません。

それが生き永ら得た、生かされた者達の最低限の責務ではないでしょうか?

※1、2の日本語訳は「尹東柱詩碑建立の趣意書」製作者による

윤동주 시비 건립 취지서

도시사 교우회 코리아 클럽 윤 동주 추모회 시비 건립 위원회

해방（광복） 전의 조선에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지금도 남북모두에서 높이 평가되는 드문 시인입니다. 윤동주는 구 만주의 간도(현재의 중국 동북지방)에서 태어나, 연희전문학교(현재의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입하여 뿔교(立教)대학교에서 반 년간 공부한 후, 도시사(同志社)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그는 도시사대학교 재학 중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로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에 체포 되어 기소 되었습니다. 조선어로 시를 쓴 것이 조선어 사용은 독립운동에 직결된다고 하여 금지하고 있던 당국의 노여움을 샀던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 그것도 전시하에서의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았고,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송되어 복역하던 중, 해방을 눈앞에 둔 1945년 2월 16일 옥사하였습니다. 향년 27세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후쿠오카 형무소의 생체 실험과도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해당했다’ 는 설도 유력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모든 것이 비밀리에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 진상은 전혀 알리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토 시절의 윤동주의 작품과 유품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방 후 윤동주는 한국과 북조선 모두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국어 교과서에 그의 시가 실려 있어서, 한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친숙한 국민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의 교과서에도 그의 시가 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치쿠마쇼보(筑摩書房)에서 발행한 『신편 현대문: (고등학교 3학년용)(이바라키 노리코 저 『한글로의 여행』 (아사히신문사 간행에서 전체)에 윤동주의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옥사와 일본 교과서에 게재’ 라는 양극단의 평가 속에서, 우리는 50년의 세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시는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많이 읽혀 그에 대한 수많은 평론과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압도적인 인기가 있으며, 그 순수한 시정을 흠모하는 청년들은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많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태어난 고향인 간도에는 그의 묘지가, 출신 학교인 연세대학교에는 그의 시비가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탄압을 받고 옥사한 일본에는 윤동주의 ‘혼적’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그가 많은 시를 썼음에 틀림없는 교토라는 땅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사대학교의 코리아 출신 동문들로부터 “윤동주와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한 우리 도시사의 동문, 동포 학생으로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없을까” 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소박한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전후 50년 가까이 되었는데…….” 라고 하며, 조금 늦기는 했지만 “무언가 하고 싶다. 무언가 해보자.” 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윤동주의 47주기 기일인 1992년 2월 16일, 도시사 교우회 코리아 클럽의 동문회와 동포 학생, 그리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제1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날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재일동포는 물론, 윤동주가 태어난 고향인 중국 간도 출신의 조선족 유학생, 나아가서는 많은 일본인들도 참석하여 그 수는 백 명이 넘었습니다. 그 뒤에도 일본인들로부터의 반향이 끊이지 않아, 도시사 교우회 코리아 클럽에서는 일본 각지의 여러 사람들과 공동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을 가운데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미안해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셨습니다.

1995년은 하나의 시대에 획을 긋는 해였습니다. 종전, 해방, 패전, 광복, 생환, 억류, 망향, 기아, 좌절 등 사람마다 다양한 말, 다양한 생각이 교차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전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침략을 주도했던 일본 측에서조차 원폭, 중국 잔류 고아, 아시아의 각지에 남겨진 군인, 군속 문제 등 상흔이 완전히 불식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러한데 하물며 침략을 당했던 측에서는…….

전후 50년. 어쨌든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이러한 전후 50년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방법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과 침략이라는 몸서리처지는 일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식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쟁과 침략이라고 하는 일에 담기조차 무서운 말이 성전 혹은 협화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고 있던 수많은 청년들의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하늘을 우리러 한 집 부끄럼 없기를” 하고 읊었던 시인 윤동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인이 배웠던 도시사의 설립자 니지마 조(新島 襄)는 “양심이 전신에 충만한 대장부들이 펼칠 것” 이라 말했으나, 시인의 생전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발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그는 살았습니다. 그 맑고 찬 삶의 모습을 우리는 흉내조차 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혹은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시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의 일환으로, 또 부끄럼 많은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이 형제로써 남기고 싶은 것의 하나로 ‘시비’ 를 건립하자는 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라와 민족, 종교, 사상과 신조를 초월하여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혼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 모임에는 한국・ 일본인은 물론, 널리 아시아 각국 여러 분들의 참가도 적극 환영합니다. 이 시비가, 과거의 역사를 잊을 수는 없다고 해도, 잘못은 용서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 윤동주 (1917～1945)

에게 도시사대학교 명예문화박사 학위를 증정

한국(조선)의 국민적 시인으로 알려진 윤동주는 1917년 구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나 1938년 연희전문학교(현재 연세대학교) 문과에 입학하였으며 1941년에 졸업했습니다. 1942년 4월 뿔교대학교 문학부 영문과에 입학하나 같은 해 10월

도시사대학교 문학부 문화학과 영어영문학 전공으로 편입하여 재학중 한글로 시 창작을 이어 갔습니다. 1943년 7월 항일독립운동 사상범으로 교토 시모가모 경찰서에 체포되어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했습니다.

1947년에 윤동주의 시가 처음으로 공표된 이후 그의 대표적인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널리 읽히게 되었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그의 시와 삶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도시샤대학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윤동주 서거 50주년이 되던 1995년에 윤동주 시비 건립에 협력했습니다.

지금도 도시샤대학교에 있는 윤동주 시비에는 한국에서 온 수많은 고등학생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16일에는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시샤는 2025년에 150주년을 맞이함과 더불어, 그간 전쟁의 시대가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그 시대의 희생자가 되었던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5년 일본 사회가 전후 80주년을 돌아보며, 그리고 윤동주 시비 건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저희 대학은 그 역사 속에 윤동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역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시대를 전망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2024년 12월, 도시샤대학교는 윤동주에게 명예문화박사 학위를 증정하기로 결정하였고, 2025년 2월 16일에 명예학위 증정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14年1月撮影

延世大学構内の詩碑

연세대학교 구내 시비